

조선시대 對日交流와 불교

이 진 오*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승려의 일본 체험과 기록 |
| 2. 對日 使行의 문제점 |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對日交流 문제는 조선이라는 한 나라와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교류라는 좀더 객관화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조선과 일본의 관계로 보지 않고 우리와 일본의 관계로 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¹⁾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1) 예컨대, 한일교섭사라 하면 1948년 한국정부 수립 이후 한일 관계를 다룬 것이 아니라, 고조선부터 지금까지의 관계를 다 다루고 있다. 물론,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계속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개념이지 온전한 문화적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 한 왕조나 국가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통시적으로 다룰 경우에는 이러한 무리가 생긴다. 첫째, 조선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시하여 논의하게 된다. 둘째, '우리' 혹은 '우리민족'이라 하는 말의 범위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하다. 예컨대, 고구려가 차지했던 막대한 만주벌판과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 이들은 '우리'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삼국시대 우리 영토의 진정한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 그때도 두만강 압록강 이남인가? 포함된다면 지금 만주에 사는 백성은 우리 민족인가, 아닌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즉, 조선과 일본의 교섭을 '우리'와 일본의 교섭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무방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對日 교류에 있어서 조선의 교류 자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하여 불교라는 요소가 朝日 교류에서 어떤 양상과 성격을 지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교라는 요소와 관련한 조일 교류의 양상과 성격의 파악을 통해 조일 교류 전체의 성격을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고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일 교류를 하면서 조선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점검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십여 차례나 계속된 대일 사행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선은 문화적 자극으로 인한 어떤 뚜렷한 반응과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儒敎의 小中華意識'에 있다고 보고, 불교계의 조일 교섭 양상과 비교하면서 조선시대 조일 교섭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2. 對日 使行의 문제점

조선조 동안의 대일 사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려고만 하였지, 그들의 힘을 제대로 평가하고 배워오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늘 조선인들은 일본에 가서 그들이 조선인의 문필력을 흠모하고 칭송하는 데 황홀해 하다가 정작 볼 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필자는 그 원인이 儒敎的 小中華 의식에 있다고 본다. 이 '유교적' 소중화 의식은 소중화 의식에 더하여 부수적으로 불교적 요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일 교류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가의 문제이다. 요컨대,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조를 통털어 '한국' 혹은 '한민족'이라 보아 그 모든 왕조를 동일시하여 일본과의 교섭관계를 따지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朝日교섭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로 보아야지 현대의 대한민국과 과거의 조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여 논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학문적 엄밀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1. 儒敎的 小中華 의식의 문제

조일교섭은 각종 사신의 왕래를 통한 정치적 교섭과, 왜관 등을 통한 상업적 교섭, 왜구의 형태를 통한 침탈적 교섭, 전쟁을 통한 전면적 무력충돌 등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섭에서 조선과 일본은 무력적 충돌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화적 충돌도 나타냈다. 文治主義의 조선과 武治主義의 일본은 서로를 경멸하였다. 조선은 무치주의의 야만을 경멸했고, 일본은 문치주의의 나약함을 비웃었다. 그래서 조선은 패배하고 쫓겨다니면서도 문화적 우월감에 깨어나지 못해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존심으로 인한 盲目化는 십여 차례나 계속된 조선통신사에서 그대로 발휘되어 그들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자존심은 한마디로 小中華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소중화 의식이란, 중국이 이룩한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하여 주변 모든 국가에 대해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 中華主義인데, 조선은 세계 최고의 중화문명을 가장 잘 받아들여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문명의 수준을 이루었고, 특히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로는 중국을 대신하여 중화문명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떠맡았다고 자부하는 의식이 소중화의식이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대일 교섭을 하는 데 세 가지의 자만에 가득찬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는 문명 우월 의식, 둘째는 도덕 우월 의식, 셋째는 오랑캐 경멸 의식이다.

첫째로 문명 우월 의식은 문치주의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저들이 어떠한 다양하고 저력있는 문명을 갖추고 있든 간에 적어도 문헌에 대한 지식과 글솜씨에 있어서는 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하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란 저급한 것이므로 그저 호기심으로 살펴볼 만한 정도일 뿐, 그들의 문화란 그다지 신경 써서 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조선인들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문명 우월 의식은 일본사행길에서 글솜씨를 통해 마음껏 발휘되었으며, 한편으로 그들의 崇武 문화에 대한 경멸과 비판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발로되었다. 그들이 글은 통 모르면서도 싸우는 데는 대단히 능하며, 매우 잔인하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도덕 우월 의식은 문화적 내용으로 조선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품격과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도 저들보다 한 수 위라는 자부심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은 주로 남녀간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는 쪽으로 집중되었다. 남녀의 풍기가 문란하여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통신사행기록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오랑개 경멸 의식은 위의 두 가지 의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면서도 훨씬 단순한 원리로 이루어진다.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단지 저들이 오랑개라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모든 것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으로 인해 애당초 조선인들은 일본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각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다. 그 결과, 그 많은 교류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2. 대일 사행에서 불교의 문제

조선이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를 거부하는 자만적 태도는 조일 교섭에서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崇儒의 나라였고 일본은 崇佛의 나라였다. 숭불의 나라 일본에 대해 조선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 더구나 일본에서 지식인은 거개 승려였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또한 승려였으므로 조선에서 사신이 가면 주로 승려들이 나와서 응대하였다. 그런데도 조선 쪽에서는 승려 한 사람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 知彼知己의 전략을 구사하는 데 커다란 실책이 되었다.

만약 조선측에서도 수행이 높은 승려를 포함시켰더라면 저쪽의 승려들과도 능수능란하게 응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쪽 권력자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교도에게 있어 성직자는 언제나 존경해야 할 대상이어서 국가나 민족의 대립관념, 혹은 권력의 고하관계를 無力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다. 선조실록에 다음과같은 기록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회답사 여우길(呂祐吉)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전대, 덕천가강(德川家康)의 부중(府中)의 일체 기무(機務)를

한두 중이 그 권세를 모두 잡고 있으므로 유정(惟政)이 갔을 때도 먼저 이들과 교제하여 정분을 쌓아 적의 정세를 정탐하는 밑바탕으로 삼았다 합니 다. 신들이 갈 때에도 저들의 정황을 살피려면 이런 재책을 버릴 수 없을 듯하니, 유정은 다시 갈 수 없더라도 그때 데리고 갔던 영리한 중 한 사람 을 가려서 데려다 보조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중은 데려갈 수 없다고 전교하였다.²⁾

이렇게 하여 임란 직후 포로 채환의 일로 四溟堂 惟政을 일본에 파견한 이 외에는 일본에 파견한 사신에 일체 승려를 포함시키지 않았다.³⁾

유학자들로 구성된 조선통신사는 우선 일본의 문화에 대해 종교적으로 거부 감을 느꼈으므로 저들은 불교문화에 대해 거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저변에는 異端寂滅之敎란 경멸의식이 깔려 있어서 일본문화를 적시하는 데 더더욱 장애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통신사의 숙소가 주로 사찰이었던데 비해 사찰의 풍경이나 불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거룩함 등에 대해 대개는 특별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이단으로서 배척하는 유학자적 태도는 小中華 의식과 함께 일본의 문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멸하는 요인으로 상충작용 을 하였다.

일본승려들과의 대담이나 교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승려는 조선 지식인들과의 교류에서 주로 시문을 주고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 는 이들이었다. 때로는 양국의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필담으로 주고받았으 나, 그 내용이란 극히 소박한 수준의 것에 불과하였다. 때로는 유가의 기본경전 에 관한 토론도 있었으나 불교경전이나 교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다시피 하

2) 『宣祖實錄』 39年 10月 7日(壬寅)條

回答使呂祐吉啓曰, “臣等伏聞 家康府中 一切機務 有一二繼髡 全執其權, 故惟政之行 先結此徒 互致情款 以爲偵探賊情之地. 臣等之行 若欲審察彼中情形 似難舍此行計, 惟政雖不可再去 擇帶其時率去伶側僧一人 以備聽用 何如?” 傳曰, “僧人不可帶去.”

3) 반면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은 승려가 주축이었던 점과는 매우 대조적 이다. 일본에도 유학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승려를 사신으로 내세운 이 유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하겠다. 물론 승려가 일본에서 글을 아는 지식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우리 사신이 갔을 때는 그쪽의 접대자로서 유학자가 더러 기용된 데 비해 우리 나라에 사신 을 때에는 거의 승려가 전담하였다.

였다. 있다고 해 봐야 일본 승려의 면모가 수행자적 기풍을 높이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교적, 수사적 표현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정도였다.

3. 승려의 일본 체험과 기록

1. 四溟堂 惟政의 파견

승려가 조일 교섭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임란 중에 일본과의 접촉과 회담, 회담을 빙자한 적정 탐지에 四溟堂 惟政이 기용된 것과, 임란 후 쇄환사로 역시 유정을 파견했던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유정이 임란 중에 보인 활약은 일면으로 전투를 통해 왜군에 대항하고, 다른 일면으로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승려에 대해 보인 각별한 예우는 특별했으며,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단히 유용했음을 보여준다. 유정이 加藤清正의 진영에 특사로 들어가서 清正의 수하인 喜八과 만나 대화할 때의 기록이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왜인이 기쁜 표정으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일을 의논할 때는 고승을 불러서 의논하는데 귀국에서도 고승을 보낸 것을 보면 아마 이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는 때문인가 보오.” 라고 하고는 그들은 기뻐하면서 또한 나를 깊이 믿는 모습이었다.⁴⁾

또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清正是 喜八을 시켜와서 말하기를, “내가 영안에 있을 때 왕자의 장인 되는 黃護君이 말하기를, 강원도 금강산에 귀한 중이 있다고 하더니 대사가 바로 그 사람인가 합니다. 이번에 일부러 와서 나를 찾으니 다행한 일이오.” 라고 하였다. 이어 狀紙 한 권, 부채 열 두 자루를 보내와서 말하기를, “원컨대 필적을 받고자 하오”라 하므로, 이에 ‘交誼를 바르게 해야지 이익을 도

4) 惟政, 「甲午四月入清正營中探情記」 『奮忠紆難錄』

倭有喜色曰, “我國議大事 則以高僧召議矣. 貴國亦以高僧送來者 以重此事也.” 悅之, 深信之篤.

모해서는 안되나니, 밝은 곳에는 해가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터럭 하나라도 한들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글을 써 주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수많은 왜인들이 소문을 듣고 부채를 들고 찾아와 글을 받아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⁵⁾

유정은 청정과와 만남에서 왜군의 침략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부채에 써 주었는데도 청정의 반격이 없었으며, 오히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처럼 왜인들이 글 반으로 줄을 지어 왔다고 하니, 왜인들이 승려에 대해 각별한 존중의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유정은 회담을 빌미로 여러 차례 왜군의 진영 속을 드나들었다. 이 과정에서 유정은 적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상세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불교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식견으로 當時代의 상황과 대안을 통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정의 이러한 식견과 안목은 전혀 무시되었다. 유정은 들끓은 열정으로 조정에 삼차에 걸쳐 상소를 올렸으나, 승려를 최하층 천민으로 경멸하던 유학자들은 유정을 전투지휘자나 密偵 이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정의 식견과 통찰은 간단하게 무시되고 말았다.⁶⁾

임란 중의 애국적 건의를 무시당한 유정은 내심으로 무척 불쾌하였으나 내놓고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다. 배불의 여전에서 과거의 영광을 만회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의병을 일으키고 여러 어려운 일을 자임하였던 유정으로서의 어쨌든가 좋은 쪽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지식인 내지는 경륜가로서 대우받지 못한 유정은 자신이 그저 명대로 움직이는 수단적 존재에 불과함을 절감하면서 분루를 삼키면서 임란 후 쇄환사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정이 느낀 불만과 회의의 내면 심정은 대단한 것이었다.⁷⁾

5) 위와 같은 글.

淸正使喜八 來問曰, “我初永安時 王子君丈人黃護君 每稱曰 ‘江原金剛山有貴僧云’ 而今大師必其人也. 委來見我 幸甚.” 因以狀紙一卷 扇子十二柄 送來曰, “願受書跡” 卽以正其誼 不謨其利 明有日月 暗有鬼神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等語 書給 則自此以後 群倭聞奇 持扇受書者 不知其數.

6) 이에 관해서는 좋고, 「惟政의 敵陣往來記 및 三大疏考察」(춘계학술회의 논문집 II, 한국불교학회, 1996)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7) 이 점에 대해서는 좋고, 「四溟堂 惟政의 再認識」(한국불교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7)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일본에 간 유정의 상세한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다. 단지 중간중간에 유정이 자신의 심정을 읊은 단편적인 기록이 시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사명이 일본에 가서 여러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여 마침내 일왕을 감복시키고 많은 포로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그저 설화에 불과할 뿐이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으며, 조일 관계의 주무로 나서 맹활약을 펼쳤던 林羅山과의 대화가 한 토막 남아 있는데, 내용이 극히 짧고 그 내용은 의외로 유학에 관한 것이었다. 말이 대화이지 사실은 어린 林羅山의 학문 수준을 한번 시험해서 평가하고 인정하는 성격의 대화였다. 林羅山은 유학자였으므로 나이가 훨씬 많았던 사명이 이제 갓 학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林羅山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대화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정이 林羅山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도 말을 많고자 하노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 내가 숨진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숨기는 게 없느니라.’ 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질문의 내용 자체가 마치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에게 묻는 식이다. 이 질문에 대해 林羅山은 사서삼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박학함을 자랑하듯이 대답하였다.

일본 사행 길에서의 유정은 그 의식이 철저히 내면세계로 향해 있었다. 낯선 풍경과 문물을 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낯센에 대한 반응이 극히 미약하였고, 거의 인지조차도 못하는 듯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적개심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 수행자로서의 자기 연민 등의 정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사행 길에서 이국의 풍정을 처음 접하는 과정에 보인 유정의 표현을 예로 살펴보자.

8) 林羅山先生文集(東京 內閣文庫 소장본) 卷第60.

松雲問曰, “‘天何言哉! 我欲無言.’ 是何言也? 孔子曰, “‘二三子, 以我爲隱乎? 吾無隱乎爾.’ 是何意?”

허만 차면서 허공에다 글을 쓰며 말없이 앉았으니	咄咄書空坐不語
어두운 바람이 비를 불어 외로운 배를 젓누나	暗風吹雨灑孤舟
관산의 달 아래서 生死間의 십년을 보내었고	十年生死關山月
도깨비 나라의 가을에서 만리의 어려움에 처했도다	萬里艱危鬼國秋
뜨거운 바다 미친 파도 속에서 쉴 날이 없으니	炎海狂濤無日息
병든 몸 부평초같은 신세 언제나 그만둘까	病身萍梗幾時休
돌이켜 생각노니, 白玉의 천봉 속에는	顰思白玉千峰裏
원숭이와 학이 무리지어 자유로우리	猿鶴爲群得自由 ⁹⁾

일본 사행에 오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첫 기착지인 대마도에 들어서면서 대개는 이국의 풍정에 대한 감회를 늘어놓기 일쑤이나, 유정의 시각은 오직 내면으로 향하여 만리 어려운 사행길에 나선 자신의 처지에 연민의 정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일본 본토 내의 작시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계속 일관되었다.

일본 내에서 유정의 행적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유정이 일본에서 돌아온 뒤 그 다음 사행 대표를 통해 일본으로 보낸 편지 속에 그 편린이 들어 있다. 이 편지는 일본 사행 길에 사건 네 명의 일본 승려들에게 보낸 네 통의 편지이다. 그 중의 일부를 보자.

지난 번에는 내가 先師의 명에 따라 貴島에 이르러 그대, 그리고 柳川과 함께 일본에 가서 圓光長老를 만나고 五山の 여러 스님들과 종지를 충분히 논하여 그 근원을 밝혔으니 좋긴 좋았습니다만 제가 본래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아쉬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그대가 다시 마음을 다하여 우리 백성들을 쇠환토록 하여 지난 번의 기약을 저버리지 않도록 한다면 큰 다행이겠습니다.¹⁰⁾

이 글을 통해 볼 때 유정이 일본에 가서 그곳의 승려들과 佛法에 관한 토론을 활발히 벌이고 서로 교분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포로 쇠환의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유정이 내내 아쉬워 했던 것으로 보인다.

9) 「到馬島海岸浦舟中作」, 『四溪堂大師集』 권7.

10) 「與玄蘇書」, 『舊忠紆難錄』.

向者 余以先師遺訣 南遊至貴島 與兄及柳川 前至日本 見得圓光長老 五山諸德 盛論宗旨 具明所從來 佳則佳矣 未遂本願而回 無任缺然 惟兄更爲盡心 盡樹生靈 無落前期 幸甚.

그러나, 유정이 일란 중 加藤清正과의 회담에서나, 혹은 일본에 쇄환사로 갔을 때나 훌륭한 高僧으로서 존중을 받았으며, 불교와 유교에 통달한 유정이 일본의 지식인들을 압도하여 당당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였다. 때로는 그들의 침략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꾸중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정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¹¹⁾

2. 楓溪 賢正의 漂海錄

유정 이후 통신사행에서 승려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조일 교류에서 불교의 요소는 거의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초엽에 우연히 일본에 표류하였던 승려가 표류기를 적어 기존의 유학자 중심의 표류기에 비해 매우 이색적인 관찰을 남겨 놓았다. 여기에는 불교에 관련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눈으로 본 일본의 풍물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아주 흥미롭다.

이 책은 순조 17년(1817) 해남 대둔사의 승려 풍계 현정이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해서 일본에 7개월 정도 머물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글이다. 풍계 현정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풍계는 이 표류 체험을 겪고 나서 승려답지 않게 아주 다방면으로 일목요연하면서도 재미있게 기술하였다. 일본표해록의 말미에서 저자는 산이나 물 하나를 유람하더라도 또한 기록해 남기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 기록을 남겨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도시와 사람과 재화와 남녀와 음식과 기타 여러 생활 모습에 대해 기록하노라고 하였다.

표해록에서 밝힌 표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해남 대흥사 甌虎대사가 나에게 千佛像을 부탁하길래, 경주 불석산에 들어가 천불상을 만든 후 11월 16일에 경주 長津浦로 나와 배 두 척을 세내어 큰 배에는 768坐의 불상과 승도 15명 및 속인 12명, 작은 배에는 나머지 232坐의 불상과 7인의 사람이 타고 출발하

11) 본고에 인용하지 못했으나, 일본에서 유정은 시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을 침략하여 죽인 자는 그 스스로도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였다.

었다. 도중에 동래에 기착했다가 25일에 다시 출발했는데, 동래에서 수십 리도 가지 않아 서북풍이 크게 일어나 작은 배는 동래로 돌아갔으나 큰배는 여의치 못하고 바람따라 일본으로 표류해 갔다.

처음 도착한 곳은 日本 西海道 筑前國 宗像郡 大島浦이었다. 작은 포구에 도착한 후 일본인들에게 사정을 전달하자 일본인들에 의해 長岐鎮으로 옮겨졌다. 장기진에는 각국의 표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조선인 표류자를 위한 朝鮮館에 수용되었다.

장기진에 몇달 머물다 떠나 대마도를 거쳐 동래에 도착할 즈음에 폭풍을 또 만나 가덕도에 잠시 머물렀다 다시 해남으로 돌아가니 이 때가 7월 14일이었다. 전년 11월 25일에 풍랑을 만나 표류한 지 근 8개월 만에 원래 장소로 돌아온 것이다. 대홍사에 연락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달려나왔다. 처음의 작은 배는 무사히 도착하여 232좌의 불상을 모셔 놓았다. 긴 표류 기간 동안 온전히 모셔온 나머지 불상을 마저 봉안하여 천불전이라 이름하였다.

楓溪禪師는 승려치고는 매우 폭넓은 관심을 가져 일본의 복식, 언어·그릇·손님접대법·음식·술·언어·通貨·장례법·稅制·가옥·문학·종교 등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풍계의 표해록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단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주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기할 만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조선을 혐오

일인들은 매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한때 우리를 침략한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매우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본의 풍속은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몹시 혐오하여 비록 평범한 선원이라 하더라도 일인들은 다투어 맞이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아주 정성스레 대하는 것이 중국인을 대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모두가 말하기를, “조선은 부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혐오하는 것이 자고로 이와 같았다.¹²⁾

12) 楓溪 賢正, 『日本漂海錄』

이렇게 조선을 흠모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나라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미 조선은 유교국으로서 불교를 극도로 핍박한 지 오래인데도 조선을 불교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이유로 해서 조선인을 중국인보다 월등히 우대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불교는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유입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끼친 영향도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탄압하는 유교국으로 전환한지 수백년이 되는 조선을 여전히 부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전 오랜 옛날로부터 한반도에 대해 신성시하고 고마워하는 민간의 전통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다음의 기록은 더욱 신기하게 여겨진다.

왜인들은 우리나라를 몹시 흠모하는 까닭에 제주 사람이 혹시 표류하여 오면 모전삿갓(毳笠)이나 막사발 같은 것도 소중하게 보관한다.¹³⁾

오직 조선사람 것이라는 이유로 해서 별 것 아닌 물건까지도 애지중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이국적인 풍물에 대한 선호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같은 외국이라 하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달리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통신사행이 일본에 갔을 때 한문이나 서예에 거의 조예가 없는 사람들을 조차도 구름처럼 모여들어 시나 글씨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 조선을 흠모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시나 글씨를 받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했을 수가 있을까? 문맹율이 극히 높았던 일본의 당시 실정으로 볼 때 단순히 수준 높은 문명국 사람의 시와 글씨를 소장하고 싶다는 문화적 욕구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 점에 관해 앞으로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 성풍속

일본의 성풍속은 매우 독특하고 난잡한 정도가 심하여 당연히 주목의 대상

日本之俗 母論男女 甚慕我國人 雖尋常船人等 倭人競邀 至家勸以酒食 殷勤款曲 與待唐人迥異 問其委折 皆曰 “朝鮮佛國也。” 蓋其國之慕我國 自古如此云矣.

13) 위와 같은 글.

倭人甚慕我國 故濟州人或漂到者 則其所着毳笠與麤劣砂碗 亦皆以貴物藏置.

이 되었을 것이다.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점을 문화적·도덕적 우월감을 확보하는 소중한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승려인 풍계 현정에게는 이 점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정의 기록을 살펴 보자. 현정은 의외로 표해록에서 상당한 양을 성품속 묘사에 할애하고 있다.

남녀가 無別하여 자기 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더불어 섞여 앉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¹⁴⁾

이 기록에서 눈에 띄이는 점은 양상만 기록했지, 거기에 대해 어떤 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 문제라면 유학자보다는 오히려 승려가 더 엄격한 자세를 가질 법한데도 현정은 난잡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일인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하는 평가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기록부터 좀더 살펴 보자.

그 나라 국법에 여자가 남편을 버리면 큰 죄가 되지만 절개를 잃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남편이 혹시 오랫동안 멀리 가게 되면 아내를 친구에게 맡기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으면 남편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그 아이를 낳은 친구는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 있는 여인이 혹 간통을 하여 세 번 포착이 되면 그 사람은 사형감으로 논해지지만 여자는 무죄이다. 여자가 남편을 잃으면 개가를 하지 않으며,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 의지하고 딸이 있으면 사위에게 의지한다. 아들 딸 다 없으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¹⁵⁾

여기서도 일인들의 독특한 가족문화 풍속을 기록하면서도 역시 아무런 평을

14) 위와 같은 글.

男女無別 母論本國人他國人 與之雜坐 不少羞愧.

15) 위와 같은 글.

其國法 女子棄夫 則爲大罪 失節不爲罪 夫或絲年遠出 則托其妻於其友而行 絲年還家 而其妻其間生子 則其夫取以爲己子 其兒所生之父 不以爲己子 然有夫之女人 或奸之 三次見捉 則其人論死 其女則不罪 女子傷其夫 則不改嫁 有子則依其子 有女則依其婿 子女俱無 則削髮爲尼. (여기서 絲年의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다. 韓國佛教全書本의 활자화 과정에 오шиб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문맥상으로 보아 '여러 해'의 뜻으로 일단 풀었다.)

붙이지 않았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는 매우 냉정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자세로 기록하였다. 현정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들 성풍속의 단면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과 성관계 맺기를 더욱 좋아하여 下賤의 여인들이 뻐뻐하게 모여 앉은 가운데로 들어와 凹凸 등의 말을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희롱하는 정도가 극심하였다.

듣자니 일본의 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내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나라에서 극히 귀중하게 여기므로 일본의 여인은 기필코 은밀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과 내통한 일이 있으면 그 여인이 스스로 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에서는 국왕에게 보고해서 그 달수에 맞게 아이를 낳으면 관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중에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부산진의 관리가 말하기를, "이번에 표류한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 간통한 자가 있는 까닭으로 일본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가 상통했다는 내용을 그 여자가 관청에 알려 문서가 이첩되어 왔다. 만약에 이 문서가 상부 기관에 보고되면 異物과 간통한 죄로 처벌될 것이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사람을 어찌 차마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말을 삭제하여 적당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라 하였다. 이를 보면 그쪽 여자들이 관청에 알린다는 말이 과연 헛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⁶⁾

성에 대한 자유로운 그들의 태도를 기술하면서 그들의 성의식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단지 풍속에서만 그러하지 않고 제도를 통해서조차도 지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시하였다. 조선이 부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그들은 성관계도 조선인과 맺으면 더욱 거룩하고 훌륭한 일로 여긴 것이다. 자유

16) 위와 같은 글.

尤欲與我國人相奸, 下賤女人 則至於稠坐中 以凹凸等語 戲我諸國人而極矣. 盖聞倭女 通我國人生子 則其國極爲貴重 故倭女必欲通私 其人以此 或得通我國人 則其女子言於其官府 自官轉聞于其國王 計其朔數生子 則自官付料云 未知何故也. 還渡時 到釜山鎮 則鎮吏曰 今番漂人 入日本 有通奸者故 自日本國 以某人與某女相通 其女告官之意 移文來到矣 此若轉報上營 則異物通奸 則是一律 萬死生還之人 何忍殺之乎 自下彌縫拔其語云云 其女之自言告官 果爲不虛矣. (여기서 '戲我諸國人而極矣'는 '戲諸我國人而極矣'의 잘못으로 보인다.)

로운, 나쁘게 말하면 난잡한 그들의 성의식이 조선에 대한 존숭의식과 결합하는 묘한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현정은 일인들의 자유로운, 내지는 난잡한 성의식에 대해 전혀 어떤 평을 내리지 않았다.

3) 문학

풍계 현정 스스로 ‘文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때 문학은 시나 문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자문화’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문학은 서울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거처온 곳을 두고 말한다면 한 곳도 학당이 없고 한 사람도 책 읽는 사람이 없었다. 필답을 할 때는 겨우겨우 뜻이 통할 정도였다. 대개 그 풍속이 大官이든 小官이든 모두 세속하고, 또 과거도 없고 문학으로 출세하는 것도 아니니, 그 문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¹⁷⁾

여기서 현정은 문자문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일본의 실정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정적인 평가를 개입시키지 않았다. 단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를 인정하는 논조이다. 이런 점에서 현정은 문화를 우열의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각 지역의 나름대로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4) 불교

일본의 불교문화는 현정에게는 가장 관심있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의 기록에는 불교에 관한 부분이 아주 소략하게 다루어져 있고, 그다지 깊은 관심을 보인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불법은 집집마다 조그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음식은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 公侯와 卿相의子弟도 모두 승려가 된다. 현재 왜왕의 아우 역시 이제 승려가 되었으니 그 존숭함이 이와 같다. 또, 재가승도 많고 또한 駙馬가 되

17) 위와 같은 글.

文學則皇城等處 未知爲如何 而以余所經各處論之 無一處學堂 無一人讀書. 筆談之時 僅僅通意. 蓋其俗大官小官 皆爲世襲 又無科舉 不以文學發身故, 其不貴文學 蓋由於此.

는 자도 있다. 그러나, 승려는 다만 법화경만 외울 줄 알고 다른 경은 알지도 못하며, 참선도 할 줄 모르고 水陸齋 등의 佛事도 할 줄 모르니 가히有名無實하다고 하겠다.¹⁸⁾

현정이 그의 표해록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본을 부정적으로 본 부분이다. 일인들이 불교 자체는 매우 존중하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말이 불교이지 그 실상은 매우 빈약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 지적하는 내용이 극히 짧은 한 마디에 그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비중을 두고 논한 것은 아닌 셈이다. 그 수준의 정도를 평가한 정도이지, 조선의 불교와 비교해서 그 천박함을 지적하고 나아가 문화적 우월감을 표방하려는 그런 정도의 태도는 아니다.

5) 경제

다른 부분에 비해 경제에 관한 관심은 현정은 많이 보였다. 그들의 호화롭고 넉넉한 생활을 꽤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섬(長岐島)은 곧 중국과 주변의 여러 나라 재화가 일본의 금은재화와 교역되는 곳이어서 그 부유하고 변화함이 다른 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섬이 이런 정도이니 大坂城이 어떠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왜국 전체의 부를 짐작할 수 있다. (중략)

(내가 머물던 朝鮮館) 뒤에 왜인의 집이 있었는데, 가깝고 해서 가끔 그 집에 가 보았다. 그 왜인은 귀족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중인 정도에 불과하며 재산도 부자로 쳐 주지도 않을 정도인데도 그 집은 우리나라 관청보다 못하지 않으며, 그 화려함은 오히려 더 능가할 정도이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외면으로 본다면 의복과 음식이 지극히 풍족하다. (중략)

비록 생기질 하는 농부나 품팔이 하는 여자라 하더라도 의복이 번쩍번쩍할 정도이고, 걸인에 이르러서도 또한 극히 깔끔하다. 그들이 사는 집을 보면 그릇이 정결하고 또한 금은과 돈과 곡식을 가져서 우리나라로 치면 마땅히 부자집이 될 만한데도 오히려 때때로 나서서 구걸을 한다.¹⁹⁾

18) 위와 같은 글.

佛法則家家塑一少佛 飲食必祭 公侯卿相之子若弟 皆爲僧 今倭皇之弟 亦方爲僧 其尊崇如此. 又多在家僧 亦有爲駙馬者 然其僧只通法華經而已 他經則皆不解 又亦不解參禪 又不解水陸佛事 可謂有其名而無其實也.

19) 위와 같은 글.

경제에 관한 기록은 양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 태도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그들의 부가 월등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른 부분이 조선과의 비교를 별로 하지 않고 평가를 개입시키지 않으려 노력한 데 비해 경제에 관한 부분은 비교와 평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술 태도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의 경제적 성장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저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보면 풍계의 일본 관찰은 그들대로의 독자적 풍토를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며, 자신의 입장에서 가치를 재단하는 일은 극히 삼가는 모습이다. 유학자들로 구성된 통신사들이 유교적 소중화 의식을 바탕으로 함부로 그들을 경멸하였든지, 그들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외면해 버리던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맺음말

燕行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문화적 각성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았던 데 비해, 일본 기행록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의 수집과 의식의 각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유교적 소중화 의식에 많은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통신사의 의식 자체가 열려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대일 외교에서 일본이 불교국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데도 커다란 실책이 있다. 유정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승려를 사행단에

本島即唐貨蠻貨倭國金銀物貨灌輸交易之所 故其殷富繁華不與他島比 而本島如此則大坂城可以推知 倭國之殷富 又可以推知也.(中略)

館後有一倭人家 以其隣近 故時往其家 其倭非貴族 不過如我國之中人 其家產 亦非以富稱名者 而第宅不下於我國之官府 而華美則過之 財產雖未詳其多少 而外面觀之 衣服飲食 極爲豐厚 (中略)

雖未紹之農夫 傭作之女子 衣服粲粲 至於乞人 亦極鮮明 見其居室 則器皿精潔 又有金銀錢穀 在我國 當爲饒戶 猶時時出而乞之.

포함시켰을 경우의 유리한 조건을 살리지 못하였다.

유학자 중심의 소중화 의식이 안목의 폐쇄성을 초래했다면, 19세기 초 한 승려의 일본표류기에서 좀더 열린 시각으로 일본을 관찰하는 사례를 대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승려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문화적 우월감과 자만심을 벗어나서 좀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안목을 가졌더라면 조선조의 대일 교섭이 훨씬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